



또한 미래 성장 산업 육성과 제조업의 스마트 전환, 산업단지 재생과 기업 환경 개선,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정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를 지켜온 기업인과 상공인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며, 병오년 새해가 위기를 딛고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흥경제가 다시 속도를 내고 투자·소비·고용 회복의 긍정적인 흐름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기업과 상공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규제 완화와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신년인사회가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연대와 희망을 다시 다짐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2026년 한 해 동안 모든 사업장에 좋은 소식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다사다난하고 격동의 한 해였던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 만큼, 2026년은 경제와 민생이 안정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흥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주역은 경제인과 기업인들이라며, 올 한 해 시흥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현황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기업인들의 책임감과 인내가 경기도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평가하며, 병오년 새해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현장 중심·신속 대응·과감한 대처’를 원칙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흥시와의 협력을 통해 제조 혁신과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 환경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기념사진 촬영 후 떡국 오찬을 함께하며, 시흥상공회의소가 지역에서 새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공식 행사인 ‘2026년 신년인사회’를 화합과 희망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